



무 . 궁 . 화 . 꽃 . 이
피 . 었 . 습 . 니 . 다



세종문화회관 앞, 표지판처럼 얼마간 서 있다 광화문 쪽으로 몸을 돌린다. 걸음의 시작은 인사동, 인사동에서 세종문화회관으로 이어진 거리는 텅 비어 있다. 크고 작은 상점들의 출입문마다 휴가중 안내문이 걸려 있다.

크거나 혹은 작게, 색지거나 혹은 달력 뒷면이거나... 아무튼 서울은 비어 있다.

공중전화부스 옆에서 자리를 잡고 해적판 CD를 구워 팔던 청년은 선장 후크를 만나러 떠났을까. 수조에서 낚지를 건져 올려 거침없이 전골냄비에 었던 무교동낙짓집 아주머니는 결국 바다로 떠났을까. 빌딩마다 회전문이 멈춰 있는 8월의 서울은 휴가중이다.

사람 없는 고즈넉한 서울을 걸어보는 게 얼마만인가.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인적 드문, 이란 표현은 먼지 풀썩 날리는 광촌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은 사람들만의 치지가 아니다.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낫선 꽃들이 즐비하다. 온통 나라꽃 무궁화다. 서울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준비한 '광화문 무궁화 전시회'다. 어디에 숨어 있다 이리로 온 것일까. 일천삼백 그루에서 키를 맞춰 피어난 무궁화 한 송이 한 송이가 소담스럽다. 바람벽에 기대어 핀 자단심계, 수종을 개량하여 가로수로 키를 높인 백단심계, 여태 눈인사도 한번 못 나눴던 배달계와 적단심계가 지나가는 걸음을 살며시 볼뎀다. 꽃잎이라도 만져보려 손을 가져가니 여우비를 맞은 꽃잎마다 빗방울이 특명하게 매달려 있다.

이따금, 아주 이따금 공원을 들른 이가 잠시 눈을 맞추지만, 곧 등을 돌려 공원을 빠져나간다.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한 남편을 사랑했다. 남편이 단 한번이라도 자신을 보아줄 수 있다면, 여인이 못내 아쉬운 건 그것뿐이었다. 마을 성주가 이 고운 여인을 마음 태우며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고, 어느 날 히인을 불러 여인을 데려오라는 호령을 내렸다. 성주의 호령에도 남편 걸을 지키던 여인은 성주의 칼에 죽고, 여인의 집에 올라리로 피어난 꽃이 바로 무궁화다. 돌보아 줄 수 없는 남편 걱정에 죽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피고 지던 여인이리니.

사람 없는 빈 공원에 홀로 피어서 있는 것이 아무려면 외롭기야 할까. 그렇게 피고 져서 또 피면 그만이었지.

누군가는 선장 후크를 만나 해적판 CD를 협상하고, 누군가는 진저리나는 바다에 등을 돌리고, 누군가는 계곡에서 텐트를 걸고, 누군가는 청량리역에서 강릉가는 열차를 기다리고, 누군가는 피곤한 몸을 잠시 쉬는, 이제 막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8월 15일의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는 일천삼백 그루마다 키를 맞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 . 궁 . 화 . 꽃 . 이 . 피 . 었 . 습 . 니 . 다 .

얼른 눈 떠 돌아보면 여전히 서울은 휴가중, 아무도 없다. 슬래는 오늘도 내일도 무궁화다.